

2025. 9. 8

해외동향부 (제 7244)

- 주요 뉴스: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소폭 상승 예상. 금리인하 경로 영향 등에 관심
 - 미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최종 후보는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3명
 - 일본 이시바 총리, 사임 발표. 정치적 불확실성 속 재정지출 확대 압력 증가 예상
 - OPEC+, 10월부터 증산 시작 합의. 유가 방어보다는 생산량 확대를 우선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높은 수준의 9월 금리인하 확실히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9월 금리인하 기대,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프랑스 재정 우려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부진한 9월 고용보고서 결과 등으로 약보합
유로화 가치는 0.3% 상승, 엔화 가치는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 둔화 현실화 등으로 큰 폭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6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04%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수					주요금리				
		9/5일	8/29일	전주말대비			9/5일	8/29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481.5	6,460.3	+0.33%	국채금리 10y	미국	4.07%	4.23%	-15bp
	유럽	549.21	550.14	-0.17%		독일	2.66%	2.72%	-6bp
	중국	3,812.5	3,857.9	-1.18%		영국	4.65%	4.72%	-8bp
	일본	43,019	42,718	+0.70%	CDS 5y	한국	19bp	20bp	-1bp
	한국	3,205.1	3,186.0	+0.60%		중국	41bp	44bp	-3bp
환율	달러지수	97.77	97.77	-0.00%	위험지표	EMBI+	334bp	344bp	-10bp
	유로화	1.1717	1.1686	+0.27%		VIX	15.18	15.36	-1.17%
	엔화	147.43	147.05	-0.26%		WTI유	61.87	64.01	-3.34%
	위안화	7.1328	7.1308	-0.03%	원자재	구리	448.3	451.9	-0.80%
	원화	1.3509	1.3504	+0.04%		금	3,586.7	3,448.0	+4.0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소폭 상승 예상. 금리인하 경로 영향 등에 관심

- 9/11(木)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모두 전월비 높은 수준 기록할 것으로 예상(각각 2.7%→2.9%, 0.2%→0.3%). 근원 CPI의 경우는 모두 전월비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각각 3.1%→3.1%, 0.3%→0.3%)
- 이러한 전망이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지난 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의 부진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시장에서 9월 금리인하는 기정사실로 인식될 것으로 평가. 다만, 투자자 관심은 9월 금리인하 폭, 혹은 장기적 금리 수준에 집중될 소지
- 현 상황에서는 9월 FOMC의 금리인하 폭이 0.25%p일 것으로 판단(Bloomberg Economics). 이는 최근 경기둔화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빅컷(0.50%p)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 역시 아직 당초 우려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 CME의 FedWatch 또한 9월 빅컷 가능성은 매우 낮은(11%) 상황임을 제시
- 다만 보다 장기적인 측면(내년 12월)에서 최종 금리 수준은 최근의 경기둔화 징후 증가로 이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평가(3.00~3.25%→2.75~3.00%, CME의 FedWatch). 이는 내년 말까지 총 1.5%p 인하(6번의 0.25%p)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빅컷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최종 후보는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3명

- 해시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 3명이 차기 연준 의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발언.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한편, 해시 위원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100%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언급
- 워시 전 이사는 연준의 구조적 변화를 주장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나 제한적이라고 주장. 또한 통화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월러 이사는 비둘기파적 성향의 인물로 최근에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아울러 AI 결제 및 토큰화 등 신기술 수용에 긍정적

■ 미국, USMCA 재협상 준비. 텅스텐과 우라늄 등 일부 금속은 관세 부과 제외

- WSJ 등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1개월 이내에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재협상을 준비.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원산지 규정 수정, 중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 무역적자 축소 등을 주장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할 것으로 분석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연적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품목은 관세율을 0%로 낮출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 해당 품목에는 텅스텐, 우라늄 등이 포함. 또한 특정 농산물, 일부 항공기 부품 및 의약품 등도 포함될 전망

■ 일본 이시바 총리, 사임 발표. 정치적 불확실성 속 재정지출 확대 압력 증가 예상

- 이시바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등으로 사퇴한다고 발표. 향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
-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향후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그 동안 재정지출에 엄격한 입장을 나타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으로 차기 정권에서 재정지출 확대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관측
- 한편, 7월 소비지출은 전년동월비 1.4% 증가했으나 예상치(2.3%) 하회. 7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비 0.5% 늘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 이는 상여 등 특별급여가 늘어나면서 전체 명목임금이 증가했기 때문

■ OPEC+, 10월부터 증산 시작 합의. 유가 방어보다는 생산량 확대를 우선

- 온라인 회의를 통해 10월부터 일일 13.7만배럴 증산을 승인하고, 향후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일일 165만배럴까지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 특히 공급 과잉 우려에도 생산량 확대를 통한 점유율 확대를 강조
-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0.1을 기록, '23년 2월 이후 최고치. 쇠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곡물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8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소비자신용잔액, 중국 8월 수출입, 일본 2/4분기 GDP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부채 위기 징후, '선구매 후지불' 확대 등으로 점차 증가 - WSJ

(America's 'Buy Now, Pay Later' Economy)

- 주가와 소비자 지출이 양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08~'09년 경기침체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택시장에서는 균열이 발생. 이는 '선구매 후지불(BNPL)' 방식의 확산으로 소비자, 주택 구매자, 투자자, 기업 중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
- 소비자의 절반 정도가 BNPL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신용 상황이 취약한 소비자는 연체 위험이 증가. 정부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주택 구매자에게 보다 큰 규모의 담보대출을 허용. 아울러, 미국 기업과 주식 투자자들의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을 확대. 이는 미국 경제에 새로운 부채 위기를 조성할 우려

■ 연준의 독립성 논란, 현실 감안 시 과대평가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I can take or leave central bank independency, frankly)

-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중앙은행 독립성은 주요 거시 변수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 과거 미국·영국 사례에서도 독립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물가안정 효과도 제한적. 실제로 연준은 금융위기 시기에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이는 대체로 '연준 풋' 역할을 제공
- 이와 같이 연준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 이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과대평가된 개념일 소지. '18년 이후 파월 체제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반대표가 3%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독립성보다 집단사고가 더 큰 문제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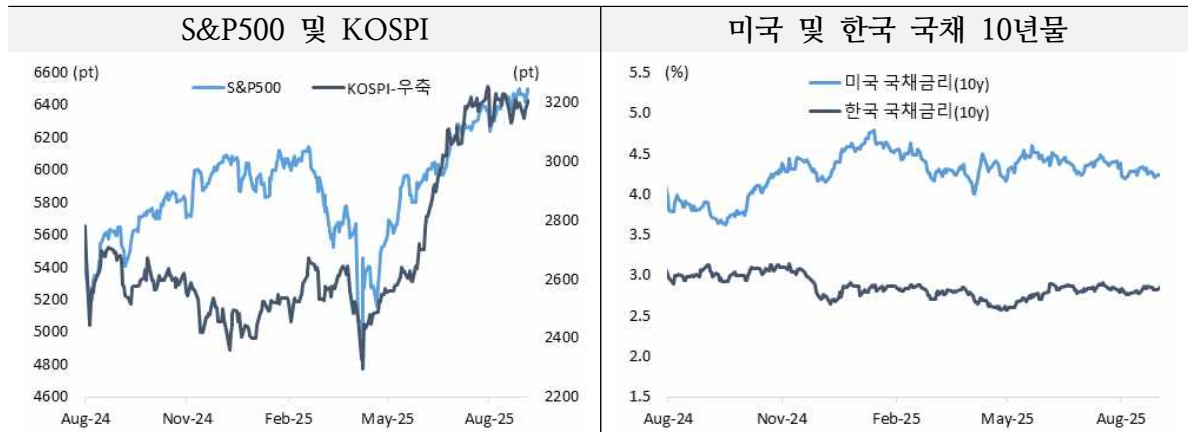
■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인력 부족 초래하며 경제 성장 저해할 소지 - 블룸버그

(Mass Deportations Are Creating a Workforce Crisis)

- 트럼프의 이민정책으로 최대 33.2만명이 추방. 자발적 출국자 등을 포함할 경우 노동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민 노동자 감소 규모는 120만명으로 추산. 이에 이민 노동자 비중이 높은 농업, 어업, 임업(45%) 및 건설업(30%), 서비스업(24%) 등은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 봉착(Pew Research Center)
- 장기적인 미국인 노동자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유입은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 또한, 이민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 재정적자 해소, GDP 성장에 기여(CBO, '24년 전망). 이에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경제 발전에 큰 위협이 될 우려

- **프랑스 정국 불안, 향후 ECB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높일 가능성 - 블룸버그**
(French Upheaval Overshadows ECB's Queasy Interest-Rate Hold)
 - 프랑스 정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ECB는 11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 ECB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동시에 우려했던 만큼의 기저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
 - 그러나 프랑스의 부채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ECB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피.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부채위기로 하락할 경우 역내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ECB의 인플레이션 예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는 ECB가 향후 통화정책 결정 시 연준의 금리 경로에 더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추가된다는 의미
- **주요국의 재정 부채 증가, 국채가격 변동성 확대채권시장 재등장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bond vigilantes will keep on circling)
- **연준의 경제 전망, 예측 범위 내의 8월 고용보고서 등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 - 블룸버그**
(The Fed Saw These Jobs Numbers Coming)
- **미국 기업의 9월초 회사채 발행, 금리인하 전망 투자자 수요 증가 등으로 급증 - WSJ**
(Companies Kick Off September With Deluge of Bond Sales)
- **중국의 새로운 對美 무역협상 전략, 대화 지속하지만 양보는 기대난 - WSJ**
(Beijing's New Playbook for Trade Talks: Keep Talking but Give No Ground)
- **Google의 독점, 정치와 경제의 결합 영향으로 과거 Rockefeller 사례와 상이 - 블룸버그**
(Why Google's monopoly is outlasting Rockefeller'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